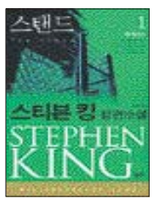
북스

Books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 나왔다



'쇼생크 탈출' '그린 마일' '샤이닝' '미저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영화들의 원작은 바로 스티븐 킹의 소설이었다.

공포의 거장 스티븐 킹이 구성에서 탈고까지 10년에 걸쳐 완성한 묵시록적 모험극 미래소설 '스탠드(1~6권)'가 무삭제 완전판 출간됐다.

변종 독감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미래의 지구에서 마약중독자 록가수, 학생신분의 미혼모, 장애를 가진 떠돌이 청년, 특이한 할머니 등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등장인물들이 종말을 눈 앞에 두고 생존을 위해 벌이는 분투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지난 1990년 삭제한 원고를 복원해 재출간 된 이 책은 SF, 판타지, 스릴러, 호러, 그리고 고전 모험극의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상상력을 자극하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퍼져 인류의 대재앙을 묘사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황금가지·각 9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발행

한창기에 대한 낡은 기억의 편린들

특집! 한창기

강운구 등 59명 지음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고(故) 한창기(1936~1997)를 잘 아는 이들은 그에게 1남 1녀가 있었다고 말한다. 잡지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 그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한국 잡지사에 독보족인 획을 그은 두 잡지의 발행인자 한국브리태니커 창립자로 한국 문화계에 독특한 이력을 남긴 한창기를 기억하는 '특집! 한창기'가 출간됐다.

한씨와 함께 잡지를 만들고, 인연을 이어온 59명이 참여한 이 책은 '한창기'에 대한 모든 것이 오롯이 담긴 동시에 그가 지나온 한국 사회·문화의 흐름 또한 짚어볼 수 있는 기록이다.

책의 편집을 맡은 설호정 당시 '샘이 깊은 물' 편집장이 전하는 한창기는 이런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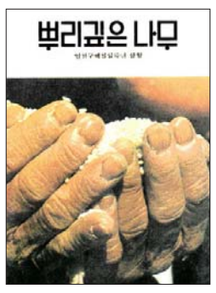
'직판 세일즈맨 제 1세대를 조직한 사람이었으며, 몇 세대 앞선 선진적 업적을 남긴 언론·출판인이었으며, 미시적인 관찰력으로 머리카락에 홈을 파듯 글을 쓰는 문화비평가였으며, 생동하는 광고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 였으며, 심미안이 빼어난 격조 높은 문화재 수집가였으며, 판소리를 비롯한 한국 전통음악의 회생을 도운 비개비였으며, 국어학자가 울고 간 재야국어학자였다'고.

책은 두 잡지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를 짚어본 '특집! 한창기'(유재천·강준만·강운구)를 시작으로 두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던 윤구병·김형윤의 기억, 한국 고미술 수집가였던 한창기에 컬렉션에 대한 좌담(송영방·곽소진 등), 한씨의 유언 집행인과 주치의였던 박원순 변호사와 홍기석 주치의의 회한, 한씨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이만재·안정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초가을의 한창기 선생. 한복이 잘 어울리는 체형이었다.

보성 벌교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창기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브리태니커 200년 역사상 동양인 최초의 지사장이 되었다.

미국의 전 부통령 험프리가 "이제까지 만난 동양사람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 사람"이라고 꼽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역설적이게도 '한글 전용' 잡지를 발행했다.



'뿌리깊은 나무' 창간호

'샘이 깊은 물' 표지

책은 1973년 창간돼 1980년 폐간될 때까지 한글 전용, 가로 편집등으로 화제를 모았고,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와 우리말 등 '토박이 문화'에 대한 애착을 담았던 '뿌리 깊은 나무'와 1984년 '사람의 잡지'를 표방하고 등장한 '샘이 깊은 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현대 교육과 인연이 먼 문맹자일 것', '유명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일 것'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숨어 있는 노인들을 인터뷰해 발행한 '뿌리 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남한 땅 인문지리지 '한국의 발견',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 발간 등과 관련한 그의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방짜유기. 옹기, 백자, 한복, 한옥, 차, 한지, 쪽물, 옹기의 보급에도 나섰던 그의 모습도 담았다.

50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책에서 한 씨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59명의 글을 읽으면 필자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자, 동반자'로 기억하는 그의 건강한 고집과 원칙이 읽힌다.

서세옥, 윤명로 등 그와 인연을 맺어온 화가들은 그에게 보내는 그림 엽서를 실었으며 한씨가 직접 쓴 '한산 모시'관련 취재기사도 함께 넣었다.

〈창비 2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잊었던 추억들로 차려낸 따스한 시의 밥상

간절하게 참 철없이 안도현 시집

안도현의 아홉 번째 시집 '간절하게 참 철없이'는 어린시절 먹을거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이후 4년 만에 나온 시집이다. 편하게 읽다 보면 어느새 아련한 추억에 젖는다.

성장의 대가로 순수함을 지불해야 했던 아이가 어른이 된 뒤 떠올리는 음식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다. 음식은 곧 사람이며, 지난날이다.

어른이 된 시인은 무말랭이만 봐도 '외할머니가 살점을 납작납작하게 썰어 말리고 있다'('무말랭이' 중에서)고 추억한다. 음식이 갖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던 것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시집은 '수제비' '물외냉국' '닭개장' '진흙메기' '건전국수' '민어회' 등 정겨운 먹을거리를 정성들여 만들어 내 온 푸짐한 밥상같다.

수록된 시 59편 가운데 22편이 먹고 마시는 얘기다. 시인 김선우씨는 "눈맛, 손맛, 입맛이 모두 새로워진다"며 이번 시집을 평했을 정도다.

음식에 담긴 풍경은 생생하다. '아버지는 우물가에서 닭모가지를 비틀고 어머니는 펄펄 끓는 물을 끼얹어 털을 뽑았습니다'('닭개장' 중에서)는 등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또렷한 형상을 느끼게 해준다.

사람은 변해도 입맛은 변하지 않는다. 음식이 곧 '추억의 입구'가 된다는 것이다. 음식을 보며, 옛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잊혀져 가는 것들을 붙잡고 싶은 현대인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집에서 노래하고 있는 과거는 경쟁과 돈벌이로 서로 분류하고 소외시키지 않는다. 한통속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뿐이다. 이번 시집을 관통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향수는 안도현이 '쓰레기장, 면사무소, 텃밭, 압록강'에서도 피어오르던 모닥불을 통해 '버무림'을 노래했던 두 번째 시집 '모닥불'(1989년)과 닮았다.

공동체 회복은 생명에 대한 사랑도 담고 있다. '산(山) 벌의 날갯짓소리 일곱근'('공양' 중에서)이 인간과 세상에 '공양'을 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그것이다.

〈창비시선·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지구촌 불륜 사유서=세계인들이 배우자 몰래 어떻게 외도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떠난 기발하면서도 흥미로운 여정. 전직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지구촌을 발로 뛰어 비밀스러운 불륜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담담·1만2천원〉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사 기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인구문제의 실상을 취재해 신문에 게재했던 현장보고서를 엮은 책. 인구문제로 인한 사회의 변화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미래 세계를 전망한다.

〈가나북스·1만3천원〉

▲천 개의 얼굴 천 개의 영혼-일리야 레핀=19세기 시각예술을 대표하는 러시아 화가 레핀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100여편에 이르는 걸작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하나의 학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화법을 구사했던 레핀의 작품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써네스트·2만원〉

▲새벽의 약속=자신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은 어머니와의 기억을 유쾌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그려낸 자서전적 소설. 프랑스의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인 콩쿠르 상을 수상한 '하늘의 뿌리'와 함께 23년 만에 재발간됐다. '하늘의 뿌리'는 무차별로 살해되는 코끼리를 구하기 위한 사투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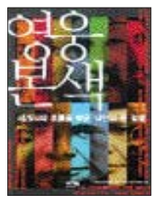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1만3천원·1만6천원〉

▲사랑에 빠진 세계사=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적 인물과 예술가들의 사랑의 사랑과 연애,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세계 각국의 사랑과 성 풍속을 에피소드별로 모아 흥미롭게 소개한다. 사랑, 성 관련 각종 도판 300여장도 함께 실렸다.

〈두리미디어·1만 2천원〉

▲박노자의 만감일기-나, 너, 우리, 그리고 경계를 넘어=박노자 오슬로대 교수가 너무나 개인적이라서 신문 등에 싣지 못했던 인터넷 일기를 엮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부터 민주주의와 국가, 폭력과 사회변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뤘다.

〈인물과 사상사·1만4천원〉



▲영웅본색-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14인의 두 얼굴=술주정뱅이에 폭군이었던 알렉산드로 대왕, 대담무쌍한 칭기즈칸의 비겁한 모습, 인도의 성인 간디에 대한 오해 등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한 시대를 대표했던 14인의 '제2의 얼굴'을 보여준다.

〈이지북·1만3천700원〉

▲단테 신곡 강의=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끝까지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책 단테의 '신곡' 작품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 15회에 걸친 강의 기록을 엮어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의 응답을 통해 강사와 청중 간의 심층적인 대화도 엿볼 수 있다.

〈안티쿠스·3만5천원〉

▲괴짜 심리학='13일의 금요일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등 주류 심리학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근거없는 통념들을 진지하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검증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엉뚱한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괴짜 심리학자들의 수백가지 실험도 소개한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3천8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점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융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태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봉선동	무등파크	32/15층	9천	6천6백
화정동	금호타운	59/3층	2억4천	1억3천
두암동	부영	24/2층	5천	3천5백
연제동	현대	32/6층	8천3백	5천8백
금호동	종원밸리스	34/20층	1억3천	9천2백
우산동	현대	43/11층	1억2천	8천4백
삼각동	그린타운	33/12층	1억5백	7천3백
봉선동	무등파크	32/13층	9천5백	6천6백
풍향동	대주빌라	78/1층	1억6천	8천9백
지산동	춤장맨션	32/3층	8천3백	3천6백
금호동	로이스빌	52/4층	3억5천	1억9천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송정동	96/141	5억2천	2억9천
화정동 카센타	79/204	5억1천	2억8천
양산동 신축	362/993	37억	21억
중흥동 요양원	107/392	10억	5억6천
연제동 유치원	182/251	5억9천	3억3천
월계동 모텔	152/427	15억8천	8억8천
송정동(역)모텔	96/141	5억2천	2억9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용봉동(전대)	40/27	1억7백	4천8백
두암동	50/49	1억4천	6천4백
쌍촌동	54/55	1억7천	7천5백
소태동	52/52	1억3천	9천1백
운암동	42/31	8천1백	4천5백
학동	52/53	1억2천	5천2백
봉선동	46/49	1억6천	6천9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용봉동	건158 21기구	3억9천	2억7천
	용봉동	건125 16기구	5억4백	3억5천
	삼각동	63/107 12기구	2억6천	1억8천
	담양읍	104/119 12기구	3억6천	2억7천
	일곡동	91/224 12기구	5억3천	2억9천
상가주택	오치동	74/173	3억2천	1억1천
	신안동	174/141	7억9천	4억4천
	오치동간판	56/95	2억	1억4천
	문흥동	54/97	2억3천	1억3천
	황금동	90/310	11억	4억
	지산동사우나	483/282	10억7천	6억
	매곡동	129/305	6억6천	3억7천
	풍향동	53/198	4억4천	2억
	삼각동	83/31	1억9천	1억8천
근린상가	월계동 신양	21/1층	2억3천	8천
	월계동 신양	10/1층	1억2천	4천
	월계동 예흥	136/4층	4억8천	2억1천
	일곡동 수산	26/3층	1억6천	7천6백
	일곡동 세진	51/2층	3억	6천8백
	일곡동 현대	57/3층	1억7천	9천5백
	매월동 빌드	58/1층	2억8천	8천
	일곡동 한빛선	51/5층	1억7천	7천6백
오피스텔	쌍암동	15	4천8백	2천3백
	동명동	13	3천	1천7백
	동명동	30	9천	4천
	쌍암동	15	4천8백	2천7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오선동	150/에프트형	3억3천	1억5천
담양 월산	2270/450	2억1천	1억3천
나주 남평	459/338	3억6천	1억6천
나주 다시	401/143	2억	1억1천
나주용산과수원	990	1억3천	7천3백
곡성 농지	1883	2억2천	1억5천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238㎡(72평),연건평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5천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월203만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완공이며, 연투자수익률11%예상된다.
임대수익용으로 적합하다.
세금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득가액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노래방 215㎡
보증금5,000/월150/合15,000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룸11개,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11시~새벽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 상가
보증금 1억, 월7백만원, 合3억5천만원인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다.(분할가능)
광주대학 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만 10만이다.
점포 뒷공간 67㎡(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안경점, 퓨전분식,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곳

북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상가 2층 학원 198㎡
매매가 21,500만원(융지6,500만원/시설·집기포함)

상가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놓으실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십시요.
업종별 프랜차이즈 점포개발팀 상가문의 환영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스타벅스 옆)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근린시설/근린상가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화순읍/군청인근,3층/대476건493	8억3200만	3억9100만
월계동/아틀이집/대340건837	5억6000만	4억1600만
중흥동/5층,사무실/대355건296	10억	5억6500만
두암동/식당,단층/대329건112	2억2200만	1억5530만
월계동/6층,모텔/대503건413	15억8300만	8억8600만
월계동/3층상가/대331건783	7억3200만	5억1260만
광산구우산동/7층/대610건2063	18억	6억4700만

▶숙박시설/다세대(빌라)/원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삼각동/원룸/대209건355	2억6280만	1억8400만
일곡동/원룸/대301건741	5억2800만	2억9800만
풍향동/대주빌라/257(78평)	1억6000만	1억1200만
광천동/모텔,7층/대281건978	8억9000만	4억9870만
신안동/모텔,5층/대425건1047	8억5800만	4억8030만
월계동/모텔,5층/대1122건1919	23억6000만	16억5200만
농성동/모텔,6층/대406건863	9억1640만	3억2500만

▶주택

소재지/층/면적(㎡)	감정가	최저가
계림동(재개발)/단층/대440건81	2억1600만	1억2100만
월산동/2층,재개발/대165건130	1억2440만	8700만
두암동/2층주택/대175건151	1억1540만	8100만
우산동/2층주택/대149건193	1억2200만	8800만
쌍촌동/2층주택/대137건102	8100만	4540만
산수동/단층주택/대136건83	1억2200만	8530만
두암동/2층주택/대248건182	1억5000만	1억5000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덕동/하남공단/대1568건1309	5억5898만	3억3130만
광산구지죽동/대1588건1539	11억1900만	7억7900만
용동/영동공단/대1653건1385	11억	4억9400만
오선동/아파트형/전425대232	3억3100만	1억4900만
양산동/대1655건900	6억9200	4억8500만
다시면/지동차공업사/대1324건473	2억	1억4300만
나주남평읍/목재소/대4132건2330	7억	3억1100만

▶토지

소재지/지목/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나주문평면/답/4983(1507)	5730만	4012만
곡성읍/답,전/11493(3477)	8400만	5880만
담양읍/전/1432(433)	2578만	1450만
장성서삼면/답/4408(1333)	4406만	3085만
광산구지원동/답/1898(574)	2847만	1993만
담양수북면/답/2290(693)	3435만	2405만
화순동면/전/4558(1379)	5748만	2580만
화순춘양면/답/2489(753)	3983만	2230만
비아동/대지/1799(544)	7억3800만	5억1620만
장성북이면/답/2863(866)	3436만	1924만

▶아파트

소재지/명칭/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금호동/부영1차/105(32)	1억1000만	7700만
풍암동/동부/175(53)	2억9000만	2억300만
화정동/삼익/112(34)	9000만	6300만
서동/이남/112(34)	7000만	4900만
진월동/대덕/82(25)	6000만	4200만
봉선동/무등2차/105(32)	9500만	6650만
삼각동/우미/79(24)	6300만	4410만
매곡동/금호/79(24)	6700만	4690만
일곡동/대림/79(24)	7600만	5320만
일곡동/한국/79(24)	7300만	5110만